

독자와 함께

“내고장 미래 설계할 일꾼 선택해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짧게는 2년 길게는 몇십년을 준비해온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선거기에 후보들로서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 후보들은 신문기사, 인터넷 댓글, 지역 유세 현장에서의 여론 등에 대해 예의주시한다.

선거는 바람이라는 말 때문인지 후보들은 유권자 표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대세론과 불가론 두 바람 중에 어느 후보자가 어느 바람을 타느냐에 따라 후보자들의 승패가 갈라진다. 따라서 해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대세론이 불기를 간절히 바람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및 해당 지역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기뻐하고, 불리하게 나올 경우 우울이 되기도 한다. 때로



유권자는 선거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일꾼, 참일꾼을 뽑아야 한다. 광주시 남구 대촌동 선거벽보.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론조사는 참고용일뿐 후보 선택기준 돼선 안돼

대세론·불가론 등에 휩싸여 진정한 일꾼 놓쳐서야

는 대세론에 휩싸였다고 해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거운동 전략을 짜기도 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지만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후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

누가 1등을 달리고 있으니 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대세론’이나 1등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불가론’에 휩싸여 진정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로서는 여론조사로 일희

일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로서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참고용이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 고장의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양 황승 (광주시 광산구 선거위 홍보계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6·2 지방선거 공명선거 실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대 종단 공동 호소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7대 종단 대표와 지난 10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기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 전문을 실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더불어 과정이 중요시되고, 대립 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소신투표를 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7대 종단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 투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 합시다.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0년 5월 10일

클릭! 맛집



광주서 찾은 ‘고흥 9미’ 서대회

맛의 비법은 식초...먹고 남은 양념에 밥 한그릇 쓱쓱

■광주시 두암동 ‘서대나라’ 서대의 계절이다. ‘서대가 얼드려 있는 개펄도 맛있다’는 서대 맛의 최고봉은 역시 서대무침, 제대로 된 서대무침의 맛을 보려면 광주시 북구 두암동 841-14번지 서대나라(업주 소진영)로 가라. 맵콤하고도 새콤달콤한 맛이 혀가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가지미루 참서대과에 속하는 서대는 가지미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으로 참서대의 맛이 그 중 으뜸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서대의 크기가 손바닥만하고 길이는 소의 혀와 비슷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대는 동백꽃이 후두두 빵에 떨어질 때부터 여름까지가 제맛이다.

이 집은 고흥군 나로도의 서대만 쓴다. 주인장의 고향이 고흥인 탓에 지인을 통해 구입하는 서대를 잡아 냉장 보관해 손질한다. 맛의 비결은 역시 식초에 있다. 주인장의 어머니가 전수해준 막걸리 식초와 사과식초를 섞어 맛을 낸 후 배·양파·고추·상추 등을 넣는다. 비법 식초를 넣은 고흥산 서대무침을 한 점 입으로 가져가 사각사각 먹으

며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마치 생선회로 만든 아이스크림 같다. 비린한 냄새가 난다며 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서대무침을 먹기엔 안심맞춤이다. 특히 서대회는 참장어·낙지·삼치·전어·굴·매생이·유자향주·붕장어 등 고흥 9미 중 으뜸으로 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서대회를 먹고 남은 양념으로 쓱쓱쓱 비벼먹으면 맵콤하면서 새콤달콤한 그 맛이 가히 일품이다. 여기에 이 집만의 시골표 열무김치를 넣어서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매운맛을 줄여 주면서 시원하게 해준다. 서대무침 뿐 아니라 밑반찬도 이 집은 별미다. 시원한 미역국과 열무김치, 명태포무침은 모두 맛갈진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흥에서 직접 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깊은맛이 배어 나온다.

얼큰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지는 장어탕도 추천할 만 하다. 서대무침(소) 2만5000원, 장어탕 8000원. 문의 062-251-1100. /글·사진=강필경기자 kps@kwangju.co.kr



〈장어탕〉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eo-dae-나라 in Gwangju, with a list of nearby landmarks like SK Mall and various restauran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featuring a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 (Commercial building in a good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인생열쇠' (Key to Life) featuring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People who struggle to achieve their dream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담공인중개사' (Adam Real Estate) featuring '태양광부지 구합' (Solar panel land acquisition)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경매컨설팅(주)' (GG Auction Consulting) featuring a detailed list of properties for auction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Gyeongju, and Seoul.